한 발, 한 발 서로의 눈이 되는 '끈끈한 산행'



봉사자 배낭에 묶인 50cm 남짓한 줄을 잡고 한 발 한 발 발맞춰 산에 오르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른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특집

'시각장애인 연화산악회' 산행 현장

양평 하계산=임은호 기자

볕 좋은 4월 둘째 날, 움트는 새싹으로 뒤덮인 양평 하계산 산길. 시각장애인 등산모임 '연화산악회' 회원 10명이 정상까지 부지런히 줄지어 산에 올랐다.

하계산 높이는 해발 326m. 동행취재 기자를 배려해 이번 주는 특별히 나지막한 산으로 산행을 결정했다는 이들은 시각장애인 4명과 지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됐다. 산행 내내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1대 1로 짝을 이뤘다. 길을 안내하는 선두대장을 필두로 시각장애인은 한 손으로 앞서가는 자원봉사자의 배낭에 묶인 길이 50cm 의 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산용 스틱을 들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각장애인이고 봉사자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나뭇가지 처져있어요. 이마 조심해요~."

앞서가는 봉사자가 뒤따라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의 상태나 주의할 점을 조곤조곤 알려준다.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는 순간이다.

턱턱 막히는 숨으로 산악회 일행과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취재기자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춘 시각장애인 김상희 씨가 "수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산에 오른 '짬바(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줄임말)' 무시 못 하겠죠?"라고 말하자 일행 사이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매주 수요일,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불어 함께 산행한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다. '연화산악회'의 시작은 2010년 이맘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애인의날 행사에서 만난 이들은 종종 친목모임을 가졌고, 이는 산행으로 이어졌다. '연화산악회'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5년 전이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에서 1993년부터 본인의 택시로 '중증장애인 세상보기' 이동봉사를 한 신광욱 거사가 총대를 메고 산악회를 출범했다. 택시기사 동료들과 30년 넘게 순례 이동봉사를 진행해온 신광욱 거사는 "평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이 나들이와 함께 체력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등산만큼 좋은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연화산악회' 시각장애인 회원은 9명.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산행에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산행은 시각장애인과 봉사자가 1대 1 짝을 이뤄 가는 것이 필수이기에, 봉사자 수급의 어려움으로 회원을 더 늘릴 수가 없다.

산행에서는 시각장애인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다. 감각이 뛰어난 시각장애인들은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금세 알아차리고 지적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말이다.



선두대장을 따라 짝 맞춰 나란히 산을 오르고 있는 연화산악회원들.

장애인·봉사자 의지하며 산행

매주 수요일은 산에 가는 날

"우리는 가족이다" 건배사도

5월에는 1박 2일 지리산 도전

가끔은 위험한 순간도 맞닥뜨린다. 늘 신경 쓰며 걷지만 나무뿌리에 발이 걸릴 때도 있고 바위에 발이 미끄러질 때도 많다. 위험한 고비가 있어도 서로를 믿고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가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진다.

정상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때도 시각장애인과 봉사자는 짝을 지어 앉는다. 밑반찬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릇에 떠주며 원활한 식사를 돕는다.

하계산에 오른 이날,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온갖 반찬들이 쏟아져 나왔다. 즉석에서 새콤달콤 초장에 묻혀낸 봄동, 소시지 야채볶음, 미역무침까지 다양한 반찬을 서로 나누며 든든하게 속을 채운다. 가끔은 막걸리 한 잔씩을 돌리기도 한다. "우리는 가족이다"를 건배사로 정다운 식사를 함께 나누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년간 이어진 산행은 시각장애인 회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상용 산악회장은 "전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등산을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밝게 웃었다.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희 산악회 부회장은 "남편과 아이들이 등산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회장은 "장애가 있음에도 활동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엄마를 보고 두 자녀는 사회복지사가 됐다"면서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산행 중 도시락을 나누며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상에 도착해서 남기는 기념사진은 필수다.

김근철 씨는 "장애인들에게 체력은 자신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시절 시력을 잃은 그는 재활원에서 운동을 시작해 국가대표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도 출전한 역도인이다. 40여 년을 선수와 코치로 활동한 그는 은퇴 후에도 체력 단련을 위해 자주 산에 오른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동안 겪은 위험과 고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얻는 것이 더 많다"면서 "산에 여러 번 올라 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산행은 일상생활에 활력이 된다. 전상용 씨와 호흡을 맞추는 강용길 씨는 서로 사촌지간이다. 사촌 동생과 함께 산에 오르기 위해 주말에 일하고 수요일을 휴무로 정할 만큼 산행에 진심인 강용길 씨는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산에 오르다 보니 예전보다 진한 가족애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연화산악회'는 산행을 할 때마다 1만원씩 회비를 걷는다. 총무가 잘 관리했다가 우천으로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날에는 산행 후 인근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한다. 예산이 부족하기에 산행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산을 주로 택한다. 이동차량을 대절해야 하는 지방 산행은 일년에 한두 번 가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회비를 차곡차곡 모아 한 번씩은 꼭 지역의 명산을 오르기 위해 노력한다.

김학래 선두대장의 목표는 '연화산악회'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이 가기 좋은 한국 100대 명산'을 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79개 산에 올랐으니 100대 명산을 소개할 날이 머지않았다.

'연화산악회'는 5월, 1박 2일 지리산 등반에 도전한다. 태백산과 한라산에 이어 지난해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후 다들 자신감이 붙었다. 김학래 선두대장은 "오랫동안 준비했기에 회원 모두가 의욕이 대단하다"면서 "보이지 않는 험한 산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의 특별한 산행을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룸비니, 보드가야 부처님을 사진으로 만나세요

※ 작품사진 크기 5x7cm 사이즈
(액자포함 1만원) 택배비 별도

사진 구매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사르나트 초전법륜상

▼우주의 중심, 수미산





◀파키스탄 부처님 고행상

▼보드가야 대탑 부처님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최고의 성지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 대탑 내
부처님 항마족지인상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탄생상

